

# 노인의 자산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활동참여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신 용 석**  
(성균관대학교)

**원 도 연**  
(성균관대학교)

**노 재 현\***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는 노인의 자산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활동참여의 다중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고령화연구패널조사 5차 자료 가운데 65세 이상의 4,150명을 대상으로 SPSS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자산수준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직접 효과를 나타냈다. 둘째, 자산이 많은 노인일수록 공식적 사회활동참여와 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식적 사회활동참여와 비공식적 사회활동 참여는 삶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자산수준은 공식적 사회활동참여와 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자산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메커니즘을 확인하였고, 노인의 사회활동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적 전략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요 용어: 노인의 자산수준, 공식적 사회활동참여, 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 삶의 만족도, 자산복지효과

\* 교신저자: 노재현, 성균관대학교(saabok@hanmail.net)

■ 투고일: 2017.4.24    ■ 수정일: 2017.6.8    ■ 게재확정일: 2017.6.23

## I. 서론

우리나라 국민들은 행복할까?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을까?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가속화, 빈부격차의 심화, 자살 증가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의 등장으로 정책적 관심이 경제성장 중심에서 점차 국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제고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복지예산비율은 1990년 이후로 증가하고 있으나(이현복, 2016), 이런 국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행복도나 삶의 만족도는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sup>1)</sup>. 그런데 국내의 복지수요도(10위)나 경제활력도(8위), 재정지속도(3위)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국가가 경제적 발전을 통해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행복도 혹은 삶의 만족도는 이와 더불어 다양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다른 지표들과 달리 현실에서 쉽게 체감되는 국민행복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며, 효과적인 전략요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국제적으로 나타난다(OECD, 2016).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현상과 유사하며,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층이 국민 중 제일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국가지표체계 홈페이지, 2016년 기준). 따라서 노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쟁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노인의 경우, 연령적 특성으로 인해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가 많고, 최근 노인단독가구의 증가 현상에 따라 더욱더 삶의 만족도 부분에 있어 취약하다. 더욱이 한국의 노인은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사회적, 개인적 대응책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 이는 최근 한국의 가족내 노인부양의 전통이 급속히 바뀌고, 중고령자들의 취업률이 상승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한국사회의 고령인구의 증가추세와 기대수명의 증가를 고려할 때, 늘어난 노인들의 삶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즉, 노인들의 삶의 만족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성격, 건강, 경제력, 교육수준, 사회활동 등의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권중돈, 조주연, 2000; 조용하, 2009; 김명숙, 고종욱, 2013; 조성

1) 47개 국가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 우리나라 50세 이상의 삶의 만족도는 36위로 저조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OECD, 2016). OECD 국가의 복지수준을 비교한 또 다른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b)에서도 삶의 만족도 지표를 포함하고 있는 '국민행복도' 부문에서 한국은 34개 OECD 회원국들 중에 33위를 차지하여, 국제적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희, 유용식, 2016). 다시 말해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개인적인 특성과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 간의 결합을 통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자산축적과 사회활동참여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자산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와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Sherraden, 1991), 특히 소득이 거의 없거나 적은 노인에게 경제적으로 완충적 역할을 해준다(원도연, 한창근, 2016; Ando & Modigliani, 1963). 또한 노인들에게 있어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활동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Cavan, Burgess, Havighurst & Goldhamer, 1949)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즉,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사회활동참여는 노인들의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를 향상시켜 성공적 노화를 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Rowe & Kahn, 1997; Levasseur, Richard, Gauvin & Raymond, 2010; Han & Hong, 2011).

그렇다면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직결되는 사회활동참여의 특징은 어떠한가.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사회단체 참여율은 친목단체활동에 전체 응답자의 43.4%가 참여하고 있었으며, 종교활동 8.3%, 동호회활동 4.9%, 자원봉사활동 4.5%, 정치사회단체활동 0.5%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주목할 점은 한국 노인들의 사회활동은 친목단체활동 위주로 참여한다는 점이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친목단체활동, 동호회활동, 정치사회단체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등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편 노인에게 있어서 경제력은 소득보다는 자산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를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으로 나누어 가구소득과 가구당 자산 보유액을 살펴보았을 때, 평균 소득은 60세 이상이 가장 낮았지만, 자산은 60세 이상이 50대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016). 물론 각 개인이 아닌 가구주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지만, 이와 같은 현상은 노인들의 경우 삶을 영위하는 경제적 수단으로서 소득보다는 자산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최근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경제적 요인 및 사회활동참여와 관련하여 이들의 영향력을 밝히고 인과관계를 규명하려는 노력들이 증가하고 있다. 자산 및 소득과 사회활동참여의 정적 관계가 밝혀진 바 있으며(최성애, 1999; 이병순, 김옥, 2006; 김경태, 2010; 맹창호, 2014; Richard, Gauvin, Gosselin & Laforest, 2009; Han & Hong, 2011), 사회활동참여와 삶의 만족도의 정적 관계를 밝히는 연구 역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김

영범, 이승훈, 2008; 강현정, 2009; 권현수, 2009; 전명진, 문성원, 2016; 허준수, 조승호, 2017).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대부분 인과적 경로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요인인 사회활동참여가 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러한 영향력의 본질적 원인을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또한 사회활동참여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참여여부만을 고려하거나(이보람, 이정규, 2016), 자원봉사활동(이병순, 김옥, 2006; Han & Hong, 2011) 등 사회활동의 일부만을 다루고 있어 보다 포괄적인 수준으로 확장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 요인을 다루고 있음에도 가구소득으로 한정하여(허준수, 조승호, 2017), 노인에게 있어 소득보다는 자산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이 지닌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단선적 인과관계의 한계를 확장하고 노인문제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산을 중심으로 하여 본질적이고 다면적인 사회현상을 담아낼 수 있도록 면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자산수준과 사회활동참여, 삶의 만족도 사이의 인과관계와 영향력을 포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노인의 자산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노인의 사회활동참여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노인의 자산수준, 사회활동참여 및 삶의 만족도 간의 종합적 관계는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자산복지효과(welfare effects of assets)이론을 중심으로 한 고찰<sup>2)</sup>

삶의 만족도는 다차원적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다. 삶의 만족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 것인가 하는 점은 사회복지를 비롯한 다양한 학문 체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며, 특히 노년학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도는 삶에 대한 일반적 느낌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즉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만족스러운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Neugarten, Havighurst & Tobin, 1961; Havighurst, Neugarten & Tobin, 1968).

따라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현재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 안에서의 기대 및 현실적 욕구충족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노인의 삶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 무엇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이다.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면 자산과 소득, 건강, 교육수준, 사회활동 참여, 가족 간의 관계 등 많은 요인들이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권중돈, 조주연, 2000; 김정석, 김익기, 2000; 손의성, 2006; 홍성원, 2012; 박나리, 2015; 석재은, 장은진, 2016; 이보람, 이정규, 2016; 전명숙, 태명옥, 2016; 정순둘, 정세미, 김빛여울, 2016; 조성희, 유용식, 2016; 허준수, 조승호, 2017). 남성노인들이 여성노인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권중돈, 조주연, 2000; 박순미, 2011)와 이와는 반대로 여성이 높다는 결과(석재은, 장은진, 2016)가 보고되고 있으며, 연령의 경우에도 나이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결과(김동배, 박은영, 김성웅, 2009; 박순미, 2011)와 오히려 감소한다는 결과(권중돈, 조주연, 2000; 전명숙, 태명옥, 2016)가 보고되어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에서 교육수준(김정석, 김익기, 2000; 박순미, 2011; 전명숙, 태명옥, 2016)과 소득(박순미, 2011; 전명숙, 태명옥, 2016; 석재은, 장은진, 2016; 허준수, 조승호, 2017)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유배우자인 경우

2) 자산이 가지고 있는 효과를 정립한 Sherraden(1991)의 이론을 국내에서는 ‘자산효과이론’과 ‘자산복지효과이론’이라는 용어로 혼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문에서 ‘welfare effects of assets’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산복지효과이론’으로 용어를 통일하고자 한다.

(김정기, 김익기, 2000; 박순미, 2011; 정명희, 2013; 이보람, 이정규, 2016)와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김시월, 조향숙, 2012; 박순미, 2011; 석재은, 장은진, 2016; 허준수, 조승호, 2017)하는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자산이 노인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김동배, 박은영, 김성용, 2009; 김시월, 조향숙, 2012; 최경희, 조덕호, 2012; 홍성원, 2012; 전명숙, 태명옥, 2016; Han & Hong, 2011).

소비의 대리지표로서 가구소득의 수준을 복지와 동등한 것으로 가정한 소득 기반 복지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Sherraden(1991)은 자산(asset)<sup>3)</sup>이 소비를 넘어서 복지 효과를 창출한다고 가정했다. 그렇다면 소득과 자산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소득(income)은 정기적으로 금전적 재원이 마련되는 수단이며, 현재 시점에서의 소비(consumption)로 바로 이어져 단기적으로 생활을 안정시켜준다. 그렇지만 소득이 은퇴나 예기치 못한 사고 등의 이유로 중단되었더라도 소비활동은 계속되어야 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산이다. 즉, 자산은 사람들이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해주고, 미래 소비를 위한 창고로 인식될 수 있다(Nam, Huang & Sherraden, 2008). 인간은 최상의 생활수준을 되도록 오래 유지하기 위해, 소득의 전부를 소비하지 않고 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축적한다. 그래서 우리는 통장에 예금을 하기도, 부동산을 매입하기도 한다. 심지어 운송수단인 자동차를 구입할 때조차도 후에 되팔 때의 값어치를 고려하여 구매하기도 한다. 결국 부동산, 금융뿐만 아니라 후에 현금화할 수 있는 물품조차 자산이 될 수 있을 만큼, 자산은 우리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 삶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자산을 Sherraden(1991)은 복지효과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이론화 하였다. 한편, Ando와 Modigliani(1963)는 개인의 부나 저축이 은퇴 이전까지는 증가하다가 은퇴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생애주기가설(the life-cycle hypothesis)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론과 가설은

3) 자산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정의가 내려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재산과 같은 의미로 쓰이며, 사전적으로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국립국어원, 2017). 한편 자산은 현재 소비를 위해 쓰이는 유량(flow)개념의 소득과 대조적으로 미래의 안전보장 장치로서 저장(stock)의 개념으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결국 소득과는 독립적으로 소비의 원천이 될 수 있다(전병유, 정준호, 2014).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산의 구성요소를 실물자산(부동산관련, 자동차 등 기타실물자산), 금융자산(저축액, 보증금) 및 기타 운용자산에 부채를 반영한 순자산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OECD의 지침을 근간으로 작성한 국가통계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의 분류 방법(통계청, 2016)과도 동일하다.

특히 소득활동의 기회가 줄어들어 노년층에게 있어 자산이 매우 중요함을 일깨워준다. 자산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은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거의 없는 노년층에게는 그들의 남은 삶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자산의 영향력은 많은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들의 자산의 변화와 삶의 만족도의 변화를 함께 살펴본 결과, 자산의 증가가 삶의 만족도의 변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an & Hong, 2011). 이 연구에서 소득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유의한 예측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국 경제력을 대표하는 소득과 자산 중에 노인에게는 자산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령자의 자산유형과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자산을 부동산, 금융, 연금 및 기타 자산 등으로 유형화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적립식편드나 주식투자 등의 자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이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동배, 박은영, 김성용, 2009). 또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인과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다른 요인들과 함께 순자산이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명숙, 태명옥, 2016). 한편 고령자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계층귀속의식을 살펴보면 주관적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 중 자산이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맹창호, 2014).

삶의 만족도에 대한 개념적 접근과 자산복지효과이론을 통해 자산, 특히 노인의 자산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추론이 가능하며 선행연구들의 주장도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해준다. 자산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다른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지 좀 더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Sherraden(1991)은 자산이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산이 갖는 복지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아홉 가지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가계의 안정성 향상, 미래 지향성 창출, 인적 자본과 같은 다른 자산의 발달 촉진, 개인의 집중과 특화를 가능케 함, 위험감수의 기반 제공, 개인적 효능감 증진, 사회적 영향력 증진, 정치적 참여 증진, 후세대 복지 향상 등의 효과가 그 내용이다. 각각의 효과에 대해 여러 기존 이론 및 사례를 증거로 자산의 효과를 주장하였는데, 그 중 일관되게 등장하는 주장은 “자산이 많을수록, 선택권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자산복지효과이론에서는 자산이 미래 지향성을 창출한다는 설명 중 하나로 인지심리

학 이론(cognitive psychological theory)을 사용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 개인은 출생의 순간부터 계속해서 정보를 접수하고 축적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무작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직 핵심적인 정보(salient information)만을 받아들인데, 그러한 정보는 두뇌에 기억의 흔적을 남기고 나름의 분류를 하는 단정적(categorical) 구조를 형성한다. 차후의 유사한 정보를 접하게 될 때,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는데, 이 인지적 구조를 스키마타(schemata)라고 일컫는다. 스키마타는 여러 현상이나 정보 중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특징에 집중하도록 하여, 그 사회 세계에 대한 이해를 단순화시키는 데에 사용된다. 따라서 스키마타는 후속 정보를 형상화하거나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걸러내는 필터의 역할을 한다. 자산복지효과이론에서는 자산이 이런 스키마타 축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자산의 스키마타 축진화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Sherraden(1991)은 슬럼가의 빈곤한 아이들의 경우 대학진학에 대한 정보가 그들이 인식하기에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접수, 축적하지 않고 흘려보낸다는 현상을 예로 들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의 노인의 예를 생각해볼 수 있다. 노인대학 등의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노인은 적어도 이와 관련된 정보를 인지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가 등을 즐길 수 없는 환경에 처한 노인에게는 이 활동의 정보가 그저 스쳐지나가는 것이 된다. 따라서 자산이 뒷받침될 때에서야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의 영역이 넓어진다.

또한 자산이 있을 때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고, 소득활동 이외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지만, 자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생계 활동에만 치중하게 된다. 더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는 노인은 자산의 중요성이 더 크므로, 보유한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는 사회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인의 자산 수준은 그들의 사회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해외의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자산과 사회활동참여의 관계를 뒷받침해준다. 실제로, 미국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Han & Hong, 2011)에서 자산 수준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멕시코의 시골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Winters, Davis & Corral, 2002)에서는, 개인들이 보유한 자산의 수준을 기반으로 활동의 범위(portfolio)를 선택하고 그러한 활동참여를 강화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아프리카 부룬디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구결과가 나

타났는데, 전쟁지역과 비(非)전쟁지역 모두에서 자산을 기반으로 빈곤한 자의 활동참여 수가 그렇지 않은 자의 참여 수보다 적게 나타났다(Bundervoet, 2010). 국내의 경우 노인을 대상으로 자산이 사회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실증적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경험적 증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2.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을 중심으로 한 고찰

앞서 자산이 사회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활동참여가 노인들에게 어떠한 의의를 갖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Havighurst와 그의 동료들(Cavan, Burgess, Havighurst & Goldhamer, 1949; Havighurst & Albrecht, 1953)에 의해 처음 세워진 활동이론은 퇴직 및 배우자 상실과 같은 각종 역할상실의 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들의 긍정적 자아 개념을 유지하기 위해, 상실한 역할을 대치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인은 신체적 노화현상과는 무관하게 여전히 심리적·사회적 욕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활동의 참여정도가 노인의 생활 만족도와 상관관계를 갖게 된다(Havighurst, Neugarten & Tobin, 1968).

국내의 여러 연구 결과는 이와 같은 활동이론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바로 노인의 사회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권현수, 2009; 김경태, 2010; 박순미, 2011; 정명희, 2013; 이보람, 이정규, 2016). 사회활동을 친목·여가·연고·봉사 활동 등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본 연구에서는 봉사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활동 모두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허준수, 조승호, 2017). 또한 사회활동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농촌지역의 노인(정규형, 최희정, 2016)과 저소득 독거노인들(조성희, 유용식, 2016)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결과적으로 활동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그동안 노인의 사회활동참여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개념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연대,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 참여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아직 명확한 개념적 정의와 구성요인들에 대한 합의가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김경태, 2010; 허준수, 2014). 보통 노년기의 사회활동이라 함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대외적인 관계와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김영범, 이승훈, 2008),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노인의 사회활동은 거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를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과 범위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사회활동분류의 기준은 사회활동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김영범, 이승훈, 2008).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이익단체, 사회운동단체, 봉사단체, 친목단체로 구분될 수 있고(유재원, 2000),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도 이를 활용하고 있다.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의 측면을 다루고 있고, 서로 다른 형태의 조직들을 고려한다(Stolle & Rochon, 1998). 물론 이러한 규정 또한 주관적인 것으로 지적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측면을 중심으로 하되, 다음의 이론적 근거에 의해 우선 사회활동참여를 타인과 함께 하는 상호작용과 조직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사회활동참여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역동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본 Lemon, Bengtson과 Peterson(1972)은 활동이론에 역할이론을 적용시켜서 더욱 발전시켰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상호작용주의를 기반으로 사회활동참여가 역할지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역할지지는 개인 스스로에 대한 자아상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도우며, 결국에는 삶의 만족을 높인다. 또한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의 관점은 누구와 함께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활동을 비공식적 활동(informal activity), 공식적 활동(formal activity), 단독 활동(solitary activity)으로의 분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Lemon, Bengtson & Peterson, 1972). 즉 친구, 친척 및 이웃(friends, relatives, neighbors)과 같이 친밀한 이들과의 비공식적 조직내에서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비공식적 활동으로, 공식적 자원조직(formal voluntary organizations)에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공식적 활동으로, 그리고 TV시청이나 독서와 같이 혼자 하는 취미활동을 단독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단독 활동은 다른 이와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사회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타인과의 관계 맺음, 상호작용과 조직의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노인의 사회활동참여란 가정 밖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하며, 다양한 형태의 조직에 참여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는 노인의 사회활동을 가정밖의 봉사활동, 향우회, 친목회 등 적극적인 여가시간의 활동이라고 규정한 김경태(2010)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하며, 실제로 많은 국내 연구에서도 이를 중심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다<sup>4)</sup>.

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에서도 사회단체활동은 친목단체, 동호회(클럽), 정치사회단체의 참여여부로 조사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그러나 측정과 관련해서는 사회활동참여의 유무만을 살펴보거나(이보람, 이정규, 2016), 단순히 참여단체의 수만을 고려하여 연구되기도 하였다(박순미,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규정한 사회활동참여의 범위를 기준으로 수준(참여단체의 수와 활동정도를 합산하여 수치화)까지 고려하여 측정의 수준을 정교화 하고자 한다. 즉, Lemon, Bengtson과 Peterson(1972)이 주장한 이론적 근거에 의해 노인의 사회활동참여를 공식적 활동과 비공식적 활동으로 구분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들의 연구에서는 비공식적 활동(친구와의 관계)과 달리 공식적 활동이 삶의 만족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의 상황은 많은 변화가 있다. 무엇보다 노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사회적 욕구와 노인을 대하는 현실의 괴리가 커졌다. 즉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이 지각하는 노인 연령의 기준은 높아졌으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노인 연령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은퇴 등을 통한 사회적 역할 상실의 시기는 빨라졌다는 것이다.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에 따르면, 노인 스스로 규정하는 노인의 연령은 평균 71.7세로 제도상으로 규정하는 65세 기준과는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은퇴 및 노년 관련 인식 조사(트렌드모니터, 2011)에서 보여주는 조사결과도 예상 은퇴 연령은 항상 희망 은퇴 연령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현재의 환경적 상황은 당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노인의 사회활동참여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또한 달라졌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즉, 공식적·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와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가 달라졌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최근 국내의 연구 중 Lemon, Bengtson과 Peterson(1972)의 활동의 정의에 따라 사회활동참여를 분류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나, 홍순혜(1984)는 활동을 중요한 사람들과의 활동(비공식적 사회활동), 자원적 조직체 참여활동(공식적 사회활동), 혼자 하는 활동(단독활동)으로 구분하여 생활만족도와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바가 있다. 당시의 연구결과로는 남성의 경우 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와 단독활동이, 여성의 경우 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와 공식적 사회활동참여가 생활만족도와 상관관계를 이루었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공식적·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 모두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활동참여에 관한 연구의 다수가 비공식적 사회활동보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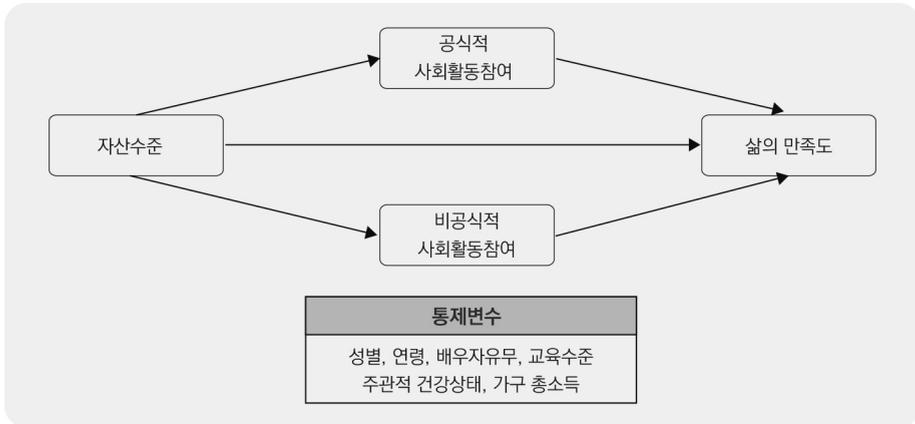
공식적 사회활동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공식적 활동이 노인의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박순미, 2011; 이보람, 이정규, 2016; 허준수, 조승호, 2017).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은 활동이론에 근거하여 분류를 시작한 초기의 연구결과와 다소 변화됐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를 근거로 유추해 볼 때, 노인의 사회활동참여에서 공식적 사회활동참여와 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서로 차이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식적 사회활동참여를 중심으로 살펴본 최근의 연구 경향과 달리, 비공식적 사회활동 참여까지 포함시키고자 하였고, 구체적으로 친구, 친척 및 이웃 간의 상호작용과 비공식 조직에의 참여로 보았다. 아울러 사회활동참여의 측정과 관련해서는 단순 참여여부가 아닌 참여수준으로 정교화 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앞선 절에서 살펴본 자산의 영향력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 공식적 사회활동과 비공식적 사회활동 중에 어떠한 형태의 매개경로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도 파악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노인의 자산수준이 공식적 사회활동참여와 비공식적 사회활동 참여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검증하고, 자산수준이 공식적 사회활동참여와 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를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가설 1] 노인이 보유한 자산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 2-1] 노인이 보유한 자산수준이 높을수록 공식적 사회활동참여가 더 활발할 것이다.

[가설 2-2] 노인이 보유한 자산수준이 높을수록 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가 더 활발할 것이다.

[가설 3-1] 노인의 공식적 사회활동참여가 활발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3-2] 노인의 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가 활발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4-1] 노인의 공식적 사회활동참여는 자산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가설 4-2] 노인의 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는 자산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가설 4-3] 자산수준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공식적 사회활동참여와 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의 매개효과 크기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제5차 자료(2014년)를 사용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대한민국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45세(1962년 이전 출생)이상의 중고령자 개인을 대상으로 표집, 2006년에 구축된 이래 매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전체 7,029명 중에서 만 65세 이상 4,226명이며, 이 가운데 주요변수에 무응답 처리된 케이스를 제외한 4,150명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가. 삶의 만족도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총 5문항(동년배와 비교했을 때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 경제상태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동년배와 비교했을 때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의 질문에 대해서 0점에서 100점까지 10점 단위로 나눈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평균점수를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49로 나타났다.

#### 나. 자산수준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노인의 자산수준이다. 그런데 자산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살펴보면, 연구마다 그 차이가 다소 존재한다. 금융 자산, 부동산 자산 및 기타 자산의 총액을 자산으로 정의하기도 하고(강소랑, 문상호, 2011; 김시월, 조향숙, 2012; 김자영, 한창근, 2015; 최효진, 2016), 자산의 총액에서 부채액을 감한 순자산으로 살펴보기도 하는데(홍성원, 2012; 원도연, 한창근, 2016; 전명숙, 태명옥, 2016), 본 연구에서는 자산을 '미래소비를 위한 창고'로 정의하고자 한다(Nam, Huang & Sherraden, 2008). 이 정의에 따라 부채액을 감한 순자산으로 노인의 자산수준을 측정하였다. 개인의 부채는 소비활동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였다. 따라서 부채를 제외한 모든 자산항목을 합산하고 그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순자산(단위: 만원)으로 계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자산(자가 거주주택의 가격, 거주주택의 전세금 및 월세보증금,

거주주택 외 부동산전체시가, 주택 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운영 및 투자사업체와 농장의 자산가치, 주택으로 생긴 부채금액은 삭감), 금융자산(현금 및 은행예금, 비자유 저축성예금, 주식 또는 투자신탁, 채권, 정기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 빌려준 돈, 깃돈, 기타금융자산), 운송수단을 현금화하였을 때의 금액(자동차, 트럭, 트레일러, 배 등), 기타 비금융자산(귀중품, 그림, 골동품, 회원권 등)의 합산금액에서 부채(금융기관 대출, 개인적으로 빌린 부채, 기타 부채)를 뺀 순자산 금액을 자산수준으로 산출하였다. 자산 수준은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로그함수로 변수변환을 실시하였다.

#### 다. 사회활동참여: 공식적 사회활동참여와 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

사회활동참여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연구마다 다양하여 그 범위 또한 다양하게 해석되고, 그 종류도 각각의 논리로 다르게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사회활동참여는 이론적 논의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Lemon, Bengtson과 Peterson(1972)의 활동 분류에 따르되, 타인과의 관계맺음과 상호작용, 다양한 형태의 조직에 참여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즉, 공식적 사회활동참여는 '공식적 자원기관에서의 참여로, 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는 '친구, 친척 및 이웃과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비공식 조직에의 참여(Lemon, Bengtson, Peterson, 1972, p.513)'로 정의하고 각각을 측정 변수화 한 뒤 분석에 투입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종교모임, 친목모임, 여가/문화/스포츠관련 단체, 동창회/향우회/종친회, 자원봉사, 정당/시민단체/이익단체, 기타 단체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각 모임이나 단체별로 활동정도를 0(전혀 없음)에서부터 9(거의 매일)까지의 연속변수로 측정하고, 이들의 합산된 점수를 공식적 사회활동참여의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 수준은 친하게 지내는 친구, 친척 및 이웃과의 접촉빈도를 0(없음)에서부터 9(거의 매일)까지의 연속변수로 측정된 값으로 정의하였다. 각각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활동참여는 활발한 수준을 의미한다.

#### 라.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앞 절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하여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 총소득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성별은 남성을 1, 여성을 0으로 더미화하였고, 연령은 만 나이로 측정되어 연속변수로 활용하였다. 배우자유무는 배우자 없음을 0으로, 배우자 있음을 1로 부여하였으며, 교육수준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이하를 0으로 하였고, 중학교 졸업이상을 1로 부여하여 더미화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5점 척도로 측정된 변수를 리코딩하여 매우 나쁨은 1, 나쁜 편은 2, 보통은 3, 좋은 편은 4, 매우 좋음은 5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가구 총소득은 노인가구의 지난 한해 총소득으로 활용하였는데, 정규성을 만족시키지 않아서 로그함수로 변수변환을 실시한 뒤에 분석에 투입하였다. 변수의 구성 및 측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변수의 구성 및 측정

구분		변수측정
종속 변수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5문항(건강, 경제,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전반적 만족도)을 0점에서 100점까지 10점 단위로 측정한 점수를 평균함
독립 변수	자산수준	총자산액(부동산자산+금융자산+운송수단 팔았을 때 금액+기타 비금융자산 보유총액)에서 부채 총액(주택구입대출금+금융기관대출+개인에게 빌린돈+기타부채)을 뺀 순자산으로 계산(만원 단위), 로그함수로 변환함
매개 변수	사회활동 참여	공식적 사회활동참여 참여하고 있는 모임이나 단체(종교모임, 친목모임, 여가/문화/스포츠관련 단체, 동창회/향우회/총친회, 자원봉사, 정당/시민단체/이익단체, 기타)에 참여=1 × 활동정도(0: 전혀 없음~9: 거의매일) → 모임분야별 각 점수를 합산, 참여수준의 정도를 수치화 함
		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친구, 친척 및 이웃)과의 접촉빈도 (0: 친하게 지내는 사람 없음, 1: 거의 없음~9: 거의매일)
통제 변수	성별	남성=1, 여성=0
	연령	만 나이로 측정
	배우자유무	배우자 있음=1, 배우자 없음=0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이하=0, 중학교 졸업 이상=1
	주관적 건강상태	5점 척도(1: 매우 나쁨, 5: 매우 좋음)
	가구 총소득	작년 한해의 가구 총소득으로 만원 단위의 연속변수로 측정, 로그함수로 변환함

####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과 SPSS Process Macro v2.16.3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자료의 오류를 검토하였으며, 각 변수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왜도가 2이상, 첨도가 7이상이 아니면 추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기준(West, Finch & Curran, 1995)에 근거하여 주요 변수들의 정규성을 확인한 결과, 자산수준과 가구 총소득 변수에 로그함수를 취하여 변환을 실시 한 뒤에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료의 이상값과 등분산성을 점검하였고, 또한 모든 변수들의 상관계수와 분산팽창계수(VIF<10: 1.12~1.61), 공차한계(TOL>.1: .62~.89)를 통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매개변수(mediator)가 동시에 두 개가 있는 평행다중매개모형(parallel multiple mediator model)이다.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변수, 즉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왜(why), 어떻게(how)영향을 미치는지의 메커니즘(mechanism)과 관련된 변수이다. 따라서 매개효과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에서 매개변수가 효과가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매개변수를 통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노인의 자산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론 및 선행연구를 통해 공식적 사회활동참여, 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를 동시에 매개변수로 설정하였고, 그러므로 두 개의 매개변수가 동시에 투입된 매개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해야 했다.

그런데 매개효과는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모델링(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에 의해 분석이 가능하다. 회귀분석에 의한 매개효과검증은 기존의 Baron & Kenny(1986)의 접근법이나 Sobel 검증법이 갖고 있는 정규분포의 가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계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단점으로 갖고 있다. 이로 인해 통계적인 검증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반해 SEM에 의한 분석은 인과관계가 복수인 연구모형에 대해 동시추정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문항으로 측정된 경우 측정오차를 반영할 수 있다. 더욱이 매개효과 검증의 경우에는 정규분포 가정에서 자유롭고 검증력이 높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의 신뢰구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Shrout & Bolger, 2002). 다만 복수의 매개변수일 경우 전체 효과로

제시되므로 개별 매개효과로의 팬텀(phantom)변수화 하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 Hayes(2013)에 의해 보급된 Process Macro는 회귀분석을 통해서도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며, 특히 매개효과를 변수별로 모두 분해하기 때문에 각 변수의 개별 매개효과를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변수인 자산과 사회활동참여는 단일차원성(unidimensionality) 변수들이며, 자산수준은 공식적·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의 개별 경로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각 매개효과 간 차이의 유의성까지 검증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한 복수의 개별매개 효과를 동시에 검증이 가능한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인 4,150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42%(1,743명), 여성이 58%(2,407명)로 여성노인의 비율이 더 높다. 연령별 분포의 경우 65~74세 52.1%, 75~84세 38.2%, 85세 이상 9.7%이며 평균연령은 74.8세이다.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66.7%(2,768명), 배우자가 없는(별거 .6%, 이혼 1.3%, 사별 또는 실종 31.2%, 미혼 .3%) 비율이 33.3%이다. 교육수준의 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 62.5%(2,593명), 중학교 졸업 14.4%(597명), 고등학교 졸업 16.5%(686명), 대학교 졸업 이상 6.6%(274명)이다. 이는 노년층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은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으며, 가설 검증의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수준이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기술분석을 통해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노인들이 참여하는 모임이나 단체를 살펴보면, 친목모임이 54.4%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모임 16.9%, 동창회/향우회/종친회 9.4%, 여가/문화/스포츠 관련 단체 4.7%, 기타 0.9%, 자원봉사 0.4%, 정당/시민단체/이익단체 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인 가

운데 69%가 1개 이상의 모임이나 단체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참여모임이 전혀 없는 비율도 31%나 되었다. 모임이나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는 57.7점에서부터 69.5점으로, 참여모임이 전혀 없는 노인들의 49.7점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친구/친척/이웃과의 접촉빈도는 주 1회 이상의 '자주 만남'을 갖는 노인이 60.6%로 가장 많았고, 월 1회 이하의 '가끔 만남'을 갖는 경우가 29.2%,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음'을 응답한 경우도 10.2%로 나타났다. 친구/친척/이웃과의 접촉빈도별 삶의 만족수준을 살펴보면,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 평균은 45.5점으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고 있는 노인들에 비해(가끔 만남: 57.1점; 자주 만남: 57.2점)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4,150	
구분		빈도(N)	비율(%)
성별	남성	1,743	42.0
	여성	2,407	58.0
연령	65~74세	2,163	52.1
	75~84세	1,587	38.2
	85세 이상	400	9.7
	평균 74.8세(표준편차 6.83)		
혼인상태	혼인중	2,768	66.7
	별거	23	.6
	이혼	53	1.3
	사별 또는 실종(이산가족)	1,294	31.2
	결혼한 적 없음	12	.3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2,593	62.5
	중학교 졸업	597	14.4
	고등학교 졸업	686	16.5
	대학교 졸업 이상	274	6.6

한편, 본 연구에서의 독립변수인 순자산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500만원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한 노인이 33.9%, 50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한 노인이 12%,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을 보유한 노인이 18.1%이었고, 1억원 이상을 보유한

노인도 36%에 달했다. 전체 노인들의 평균 순자산은 1억 1,760만원 이고, 부채만 1억 8,900만원인 노인부터 최대 33억 500만원의 순자산을 보유한 노인까지 분포 되었다. 순자산 보유액이 많은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수준은 단계적(51.7점~61.8점)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 총소득은 은퇴자가 많은 노인들의 특성이 반영되어 1천만원 미만이 38.3%로 가장 많았고, 고소득으로 갈수록 비율의 분포가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가구 총소득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건강상태별 삶의 만족수준을 살펴보면, '매우 나쁨'이 9.4%(391명)이며 삶의 만족도는 38.6점이었고, '나쁜 편'은 31.4%(1,304명)이며 만족도는 50.1점, '보통'의 경우는 44.3%(1,838명)이며 만족도는 60.5점, '좋은 편'은 14.2%(590명)이며 만족도는 65.5점, '매우 좋음'은 0.7%(27명)에 불과하였으나 만족도는 69.7점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들의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가 56점임을 감안하면,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 이상의 건강한 상태 일수록 삶의 만족수준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3. 일반적 특성별 삶의 만족수준

구분	빈도(N)	비율(%)	삶의 만족수준		
			평균	표준편차	
참여하는 모임 (중복응답)	종교모임	700	16.9	57.7	15.3
	친목모임(계모임, 노인정 등)	2,257	54.4	59.1	14.3
	여가/문화/스포츠관련 단체(노인대학 등)	193	4.7	61.3	13.2
	동창회/향우회/종친회	392	9.4	64.7	12.0
	자원봉사	18	.4	67.2	15.8
	정당/시민단체/이익단체	8	.2	69.5	9.8
	기타	38	.9	64.3	10.8
	참여모임 전혀 없음	1,287	31.0	49.7	16.1
친구/친척/ 이웃과의 접촉빈도	친하게 지내는 사람 없음	424	10.2	45.5	15.6
	가끔 만남(월1회 이하)	1,210	29.2	57.1	14.6
	자주 만남(주1회 이상)	2,516	60.6	57.2	14.9
순자산	500만원 미만	1,406	33.9	51.7	16.3
	50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499	12.0	52.4	16.3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753	18.1	54.6	15.1
	1억원 이상	1,492	36.0	61.8	13.1
	평균 1억 1,760.8만원(표준편차 21,598.9), 최솟값: -1억 8,900만원, 최댓값: 33억 500만원				

구분	빈도(N)	비율(%)	삶의 만족수준		
			평균	표준편차	
가구 총소득	1천만원 미만	1,588	38.3	51.1	15.8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008	24.3	57.4	14.5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971	23.4	60.1	14.5
	4천만원 이상	520	12.5	60.6	14.4
	모름/응답거부	63	1.5	-	-
	평균 1,888.8만원(표준편차 1,950.5), 최솟값: 24만원, 최댓값: 3억 3,000만원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나쁨	391	9.4	38.6	14.7
	나쁜 편	1,304	31.4	50.1	14.5
	보통	1,838	44.3	60.5	12.7
	좋은 편	590	14.2	65.5	12.5
	매우 좋음	27	.7	69.7	12.5

주: 삶의 만족도(100점 만점): 평균 56.0점(표준편차 15.6), 최솟값 0점, 최댓값 92.5점

## 2. 연구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수인 자산수준은 공식적 사회활동참여( $r=.158, p<.01$ )와 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 $r=.055, p<.01$ ), 삶의 만족도( $r=.293, p<.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자산수준의 통제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연령과 부적 관계를 보일뿐 성별, 배우자유무,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 총소득과는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매개변수인 사회활동참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공식적 사회활동참여는 비공식 사회활동참여( $r=.476, p<.01$ ), 삶의 만족도( $r=.240, p<.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갖고 있고 통제변수들과는 모두 유의미한 수준에서 연령과만 부적인 상관, 나머지 변수들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비공식 사회활동참여는 삶의 만족도( $r=.203, p<.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갖으며, 통제변수들과도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는데, 주관적 건강상태외만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교육수준, 가구 총소득과는 부적 관계를 갖고 있다. 한편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부적 상관을 갖는 연령을 제외하고 모든 변수들과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 관계를 갖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에서 설정한 주요 변수들 간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것이며, 상관계수의 결과로 살펴봤을 때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의심되지 않았다.

표 4.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 성별	1									
2. 연령	-.086**	1								
3. 배우자유무	.411**	-.341**	1							
4. 교육수준	.363**	-.297**	.267**	1						
5. 주관적 건강상태	.144**	-.269**	.141**	.210**	1					
6. 가구 총소득	.130**	-.196**	.162**	.248**	.201**	1				
7. 자산수준	.435**	-.153**	.093**	.290**	.217**	.141**	1			
8. 공식적 사회활동참여	.042**	-.154**	.056**	.184**	.257**	.111**	.158**	1		
9. 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	-.042**	-.102**	-.035*	-.008	.221**	-.032*	.055**	.476**	1	
10. 삶의 만족도	.141**	-.227**	.184**	.237**	.501**	.263**	.293**	.240**	.203**	1

\*p<.05, \*\*p<.01

### 3. 공식적 사회활동참여와 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의 매개효과 검증

노인의 자산수준의 영향력이 공식적 사회활동참여와 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평행다중매개모형에 대한 검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각 모형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매개변수 그리고 종속변수를 모두 포함한 3단계 모형의 설명력은 33.4%로 나타났다(F=226.6820, p<.001).

노인의 자산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전체효과(c)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β=.1955, p<.001), 이는 자산이 많은 노인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인의 자산수준이 매개변수인 공식적 사회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은 2단계 모형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β=.1014, p<.001), 자산이 많은 노인일수록 공식적 사회활동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2-1]은 지지되었다.

또한 노인의 자산수준이 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beta=.0369, p<.05$ ), [가설 2-2]도 지지되었다. 한편 자산수준의 영향력은 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에 비해 공식적 사회활동참여에 미치는 경로에서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의 자산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공식적 사회활동참여( $\beta=.0354, p<.05$ )와 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 $\beta=.0928, p<.001$ )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3단계 모형을 통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공식적·비공식적 어떤 형태이든 사회활동참여가 활발한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3-1]과 [가설 3-2]는 지지되었다. 그리고 두 개의 매개변수들에 미치는 통제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조금씩 다른 결과의 특성을 보였는데 특히, 교육수준의 경우 공식적 사회활동참여에는 정적인 방향으로, 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에는 부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자산수준의 영향력이 공식적 사회활동참여 경로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과 무관하지 않은데,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자산수준의 영향력 하에 교육수준이 다른 노인일 경우에는 효과 크기가 큰 형태의 사회활동참여를 고려해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매개변수 및 통제변수의 효과를 고려했을 경우 독립변수인 노인의 자산수준이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 $c$ )는  $5.7816(\beta=.1885, p<.001)$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므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그리고 자산의 직접효과( $c$ )는 매개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삶의 만족도에 미쳤던 전체효과( $c=5.9968$ )에 비해 감소되었다. 이를 통해 매개변수인 공식적 사회활동참여와 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는 자산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산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전체 간접효과의 계수는  $.2152(.9381 \times .1175 + .2041 \times .5144)$ 이며, <표 6>에 제시된 매개효과 크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식적 사회활동참여를 거치는 간접효과의 계수는  $.1102$ , 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를 거치는 간접효과의 계수는  $.1050$ 이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통제변수로는 성별( $\beta=-.0756, p<.001$ ), 배우자유무( $\beta=.1051, p<.001$ ), 교육수준( $\beta=.0599, p<.001$ ), 주관적 건강상태( $\beta=.3835, p<.001$ ), 가구 총소득( $\beta=.1346, p<.001$ )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배우자인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가구 총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5. 공식적 사회활동참여와 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의 매개효과

예측변수	1단계 모형		2단계 모형				3단계 모형		
	DV: 삶의 만족도		DV: 공식적 사회활동참여		DV: 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		DV: 삶의 만족도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자산수준	5.9968	.1955***	.9381	.1014***	.2041	.0369*	5.7816	.1885***	
공식적 사회활동참여							.1175	.0354*	
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							.5144	.0928***	
통제 변수	성별	-2.6124	-.0833***	-.7710	-.0815***	-.2907	-.0514**	-2.3723	-.0756***
	연령	-.0414	-.0182	-.0385	-.0562**	-.0370	-.0903***	-.0178	-.0079
	배우자유무	3.2818	.0997***	-.0005	.0001	-.3470	-.0584**	3.4604	.1051***
	교육수준	1.9282	.0603***	1.1574	.1199***	-.2412	-.0418*	1.9163	.0599***
	주관적 건강상태	7.4142	.4119***	1.1086	.2041***	.7413	.2282***	6.9027	.3835***
	가구 총소득	1.8557	.1285***	.1090	.0250	-.1947	-.0747***	1.9431	.1346***
$R^2$ ( <i>adj R^2</i> )	.3229(.3217)		.0995(.0979)		.0691(.0675)		.3348(.3333)		
$F$	276.3295***		64.0130***		43.0078***		226.6820***		

\* $p < .05$ , \*\* $p < .01$ , \*\*\* $p < .001$

한편 본 연구에서의 매개효과모형은 노인의 자산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공식적 사회활동참여와 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의 개별 경로를 통해서도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산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공식적 사회활동참여의 매개효과 계수값인 .1102와 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의 매개효과 계수값인 .1050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Hayes(2013)가 제안한 분석법에 의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의 신뢰구간으로 확인했다. 부트스트래핑을 위해 재추출한 표본수는 5,000개였고, 이를 바탕으로 95%의 신뢰구간을 통해 추정된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한계와 상한한계의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개별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으로 추정한 결과 공식적 사회활동참여의 매개효과 계수는 하한한계(lower limit: LLCI)가 .0298, 상한한계(upper limit: ULCI)가 .2326로 나타나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가설 4-1]은 지지되었다. 또한 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의 매

개효과 계수는 하한한계(lower limit: LLCI)가 .0051, 상한한계(upper limit: ULCI)가 .2271로 나타나 0의 값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4-2]도 지지되었다. 한편, 각각의 개별 매개효과 크기의 차이는 .0052로 공식적 사회활동참여의 매개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뢰구간 내에서 0의 값을 포함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4-3]은 지지되지 않았다.

표 6.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한 매개효과 및 매개효과 간 차이 검증

매개변수	매개효과 계수 (Effect)	Boot. S. E.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M <sub>1</sub> : 공식적 사회활동참여	.1102	.0508	.0298	.2326
M <sub>2</sub> : 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	.1050	.0556	.0051	.2271
매개효과 차이(M <sub>1</sub> - M <sub>2</sub> )	.0052	.0741	-.1553	.1405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자산복지효과이론과 역할이론을 근거로 설정된 노인의 자산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인과관계의 영향력은 공식적 사회활동참여와 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의 매개변수를 통해서도 유의하게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즉, 자산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활동참여의 이중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제5차 자료의 65세 이상 4,150명을 대상으로 Hayes(2013)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한 정리에 앞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성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자산수준과 사회활동참여를 모두 고려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자산과 삶의 만족도 간 또는 사회활동참여와 삶의 만족도 간 등의 단선적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것에 그쳤다면, 본 연구에서

는 자산이 어떻게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메커니즘을 파악하여 본질적 설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근거에 충실하여 각 변수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가장 큰 예로 자산에 대한 개념정의와 구성을 위한 조작화에 있어 노인의 대상적 특성과 자산복지효과이론을 중심으로 순자산을 사용하였으며, 사회활동참여 역시 이에 근거하여 개념과 범위를 규정하고 조작화를 하였다.

연구가설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자산수준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산이 많은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김동배, 박은영, 김성웅(2009), 김시월과 조향숙(2012), 최경희와 조덕호(2012), 홍성원(2012), 전명숙과 태명옥(2016), Han과 Hong(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노인의 자산수준이 높을수록 공식적 사회활동참여와 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Winters, Davis와 Corral(2002), Bundervoet(2010), Han과 Hong(2011)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셋째, 공식적 사회활동참여와 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가 활발해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김영범과 이승훈(2008), 강현정(2009), 권현수(2009), 김경태(2010), 박순미(2011), 정명희(2013), 이보람과 이정규(2016), 전명진과 문성원(2016), 허준수와 조승호(20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노인의 자산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공식적 사회활동참여와 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의 매개효과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산이 많은 노인일수록 공식적 사회활동참여와 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가 활발하게 되어 이를 기반으로 결국에는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별 매개효과의 크기는 공식적 사회활동참여가 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매개효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두 매개효과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은 사회활동참여가 공식적 방식이든 비공식적 방식이든 우위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모두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노인 자산수준의 중요성, 특히 소득보다 자산의 영향력이 더욱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 및 지자체들의 노력으로 다양한 자산형성지원사업(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이 시행되고 있지만, 노인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때 노인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원도연, 한창근, 2016). 기존 매칭저축프로그램의 경우 저축액은 주택구입, 임대, 창업, 교육훈련 등으로 사용이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과연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지를 세심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노인들이 여생을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 정도인가, 미래의 희망을 갖기에 충분한 프로그램인가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저축액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보통의 경우 저축프로그램의 저축액은 5만원에서 10만원(서울희망플러스통장, 희망키움통장 1, 2, 내일키움통장 등), 때로는 20만원(서울희망플러스통장)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적은 액수의 저축액조차도 소득이 적거나 거의 없는 노인들은 타 연령층에 비해 부담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중도 탈락률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 사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의 소득안정화를 위한 방안도 간구될 필요가 있다. 이는 전술한 저축프로그램의 탈락률의 이슈와 큰 연관이 있다. 자산의 수준이 낮은 노인들이 일정한 소득조차 없을 경우 저축프로그램과 같은 사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소득이 없는 노인의 경우, 현재 보유한 자산을 현금화하여 생활을 유지하고 있기에 그들의 소비활동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기적인 자산축적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기존 소비활동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즉 저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 자체가 없는 노인들에게는 저축프로그램 참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정책은 크게 공공영역의 사회적 일자리와 민간영역의 사적 노동시장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결국 노인의 소득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고용안정화이고,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기업은 노인의 성별, 건강상태, 교육수준, 그리고 숙련정도를 고려한 고용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년기 이전 세대의 자산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노인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이 다양하게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는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생애주기 가설(Ando & Modigliani, 1963)에서 주장하듯이 자산형성은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노년기에 이르러 자산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시간적인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산형성이 좀 더 수월한 노년기 이전의 세대가 노년기에 도달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의 필요성과 그 방법을

제시하고 현재의 자산형성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식적 사회활동참여의 활성화 및 다각화가 필요하다.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본  
अ듯이, 노인들의 저조한 사회활동참여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소홀히 대하는  
인식의 문제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활동참여에 대해 관심이 낮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회활동에 대한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고, 참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다는 것을 전문기관들이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수준이나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공식적 사회활동참여는 낮고, 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가 활발하다는  
본 연구 결과를 미루어 보더라도, 노인들에게 있어 전문 기관을 통한 사회활동참여에는  
높은 문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식적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  
들의 비율이 31%에 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더라도 대부분이 친목이나 종교모임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노인들을 위한 전문기관, 전문 인력 및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  
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확대는 노인의 공식적 사회활동참여 기회의 폭을 넓힐 수 있다.  
한편 지속적인 사회활동참여를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과 건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빈곤 계층에 있는 노인들과 정신적·육체적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노인들의 사  
회활동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역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공식적 사회활  
동과는 다르게, 비공식적 사회활동은 비교적 노인들이 가깝게 느끼는 친구, 친척 및  
이웃과의 상호작용이다. 국가와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기관이 직접적으로 이들 간의 원활  
한 교류를 돕는 데에는 지속성 면에서 한계가 있다. 다만, 지역중심의 자조모임프로그램  
과 같은 지역공동체를 조직해 주고 역량강화를 해주면 자생력과 지속가능한 사회활동단  
체로의 발전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개인에게 있어 공식적 사회활동  
참여보다 이질감이 덜하며, 참여에 대한 접근도 용이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후속 연구들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이론에 입각하여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제5차 자료  
(2014)를 활용한 횡단연구이다. 향후 종단적인 측면의 연구가 진행된다면 인간 삶의  
근본문제와 맞닿아 있는 삶의 만족과 관련한 다차원적 요인들을 밝히고 이들의 변화궤  
적을 반영,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삶의 만족과도 깊은 관계

를 맺고 있다. 따라서 사회자본이나 연계망 등의 이론적 틀에서 가족관계를 반영하면 본 연구에서 밝혀진 사회활동참여의 효과성과 더불어 자산과 삶의 만족도의 역동성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사회복지적 개입방안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활동참여를 기존의 단순 참여 유무나, 참여단체의 수로 측정한 한계를 확장하여 참여정도의 수준으로 살펴보았으나, 사회활동의 다양한 영역과 패턴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기존 이론을 중심으로 노인의 사회활동참여를 살펴보았지만, 사회활동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자면, 컴퓨터·스마트폰 등을 통한 온라인 환경에서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김선재, 강정민, 양윤석, 이인성, 김진우, 2009). 이러한 온라인 환경에서의 활동을 사회활동참여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밖의 다양한 활동의 출현과 증가가 사회활동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신용석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 및 장애인복지, 감정노동, 조직관리 등이다.  
(E-mail: sys1127@gmail.com)

원도연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주요 관심분야는 자산의 복지 효과, 노인복지, 사회복지행정 등이다.  
(E-mail: hoper80@skku.edu)

노재현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현재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에서 강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복지조사방법론, 프로그램평가, 노인복지 등이다.  
(E-mail: saabok@hanmail.net)

## 참고문헌

- 강소랑, 문상호. (2011). 중·고령자의 삶의 질에 관한 증험적(Evidence-Based) 정책설계-고령화연구패널 (KLoSA)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0(2), pp.353-381.
- 강현정. (2009). 농촌 여성독거노인의 사회활동과 삶의 만족도.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 pp.1-26.
- 국가지표체계. 2017. <http://www.index.go.kr>
- 국립국어원. (2017). *표준어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 권중돈, 조주연. (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pp.61-76.
- 권현수. (2009). 노인의 사회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8(5), pp.995-1008.
- 김경태. (2010). 노인의 종교 및 사회활동 참여가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 김동배, 박은영, 김성웅. (2009). 고령자의 자산유형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제활동의 조절효과 검증. *사회복지정책*, 36(3), pp.471-494.
- 김명숙, 고종욱. (2013). 노인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대한 통합적 접근.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3(6), pp.246-259.
- 김선재, 강정민, 양윤석, 이인성, 김진우. (2009). 온라인 환경에서 노인의 정보 공유 활동이 Quality of Life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감성적 선택 이론에 기반하여.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9(1), pp.271-276.
- 김시월, 조향숙. (2012). 중·고령자 단독가구의 삶의 만족도와 재정, 건강, 심리상태와의 관계. *Financial Planning Review*, 5(3), pp.89-116.
- 김영범, 이승훈. (2008). 한국 노인의 사회활동과 주관적 안녕감. *한국노년학*, 28(1), pp.1-18.
- 김자영, 한창근. (2015). 노인가구의 자산수준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계망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복지정책*, 42(1), pp.55-79.

- 김정석, 김익기. (2000). 세대간 지원교환의 형태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20(2), pp.155-168.
- 맹창호. (2014). 고령자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계층귀속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주관적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박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 박나리. (2015). 가족 내 자원교환유형과 거주형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베이비부머와 예비노인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박순미. (2011). 노인의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3, pp.305-332.
- 석재은, 장은진. (2016). 여성독거노인과 남성독거노인의 관계자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71(2), pp.321-349.
- 손의성. (2006). 노인이 인지한 자녀지원, 자녀관계 만족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자립적인 삶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3(2), pp.67-94.
- 원도연, 한창근. (2016). 노부모의 자산이 자녀와의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녀와의 만남빈도, 연락빈도, 금전적 지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 36(2), pp.475-492.
- 이병순, 김욱. (2006). 노인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지속성 및 참여도 영향요인 연구: 대한케어복지학, 2(3), pp.87-108.
- 이보람, 이정규. (2016). 노인의 생활만족에 대한 사회적 참여와 경제적 참여의 효과 비교. *노인복지연구*, 71(2), pp.351-377.
- 이현복. (2016). 사회복지지출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 OECD 주요국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2(2), pp.196-217.
- 유재원. (2000). 사회 자본과 자발적 결사체. *한국정책학회보*, 9(3), pp.23-43.
- 전명숙, 태명옥. (2016). 사회경제적 변인이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여가참여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6), pp.323-333.
- 전명진, 문성원. (2016). 노인의 삶의 만족도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 노인 비교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8(2), pp.153-171.
- 전병유, 정준호. (2014). 소득·자산의 다중격차: 소득·자산의 결합분포를 중심으로. *경제발전연구*, 20(1), pp.105-134.
- 정규형, 최희정. (2016). 농촌 지역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

- 향. 사회관계와 사회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3(1), pp.5-38.
- 정명희. (2013). 노인의 자아존중감이 사회활동 참여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9, pp.15-41.
- 정순돌, 정세미, 김빛여울. (2016). 세대 내, 세대 간 교류가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세대 내 교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7(2), pp.253-280.
- 조성희, 유용식. (2016). 저소득 독거노인의 사회활동참여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고독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1(4), pp.35-59.
- 조용하. (2009). 여성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삶의 만족수준에 관한 인과적 분석.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2(1), pp.1-28.
- 최경희, 조덕호. (2012). 순서화 로짓모형을 활용한 도시 및 농촌 노인의 삶의 만족도 결정 변수 분석.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4, pp.247-274.
- 최성애. (1999).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여가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 체육과학지, 8(2), pp.45-56.
- 최효진. (2016). 자산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가족관계 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통계청. (2016).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통계정보 보고서. 대전: 통계청.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016).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대전: 통계청.
- 트렌드 모니터. (2011). 은퇴 및 노년 관련 인식 조사. 리서치보고서, 2011(9), pp.2-26.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OECD 국가의 복지수준 비교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허준수. (2014). 노인들의 사회참여활동 유형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64, pp.235-263.
- 허준수, 조승호. (2017). 노인들의 삶에 만족도에 대한 인과모형 연구: 유형별 사회참여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 pp.673-691.
- 홍성원. (2012). 은퇴자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고령화연구패널 2차 자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홍순혜. (1984). *활동이론에 따른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Ando, A., & Modigliani, F. (1963).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3(1), pp.55-84.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pp.1173-1182.
- Bundervoet, T. (2010). Assets, Activity Choices, and Civil War: Evidence from Burundi. *World Development*, 38(7), pp.955-965.
- Cavan, R. S., Burgess, E. W., Havighurst, R. J., & Goldhamer, H. (1949). *Personal adjustment in old age*. Chicago: Science research associates.
- Han, C. K. & Hong, S. I. (2011). Asset and Life Satisfaction Patterns Among Korean Older Adults: Latent Class Analysi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0(2), pp.225-240.
- Havighurst, R. J. & Albrecht, R. (1953).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3rd ed.). New York: David McKay.
- Havighurst, R. J., Neugarten, B. L., & Tobin, S. S. (1968). Disengagement pattern of aging. In B. L. Neugarten (Ed.), *Middle Age & Aging* (pp.160-175).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yes, A. F. (2013). *An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 Lemon, B. W., Bengtson, V. L., & Peterson, J. A. (1972). An Exploration of the Activity Theory of Aging: Activity Type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In-Movers to a Retirement Community. *Journal of Gerontology*, 27(4), pp.511-523.
- Levasseur, M., Richard, L., Gauvin, L., & Raymond, É. (2010). Inventory and analysis of definitions of social participation found in the aging literature: Proposed taxonomy of social activities. *Social science & medicine*, 71(12), pp.2141-2149.
- Nam, Y., Huang, J., & Sherraden, M. (2008). "Asset definitions", 1-31, in *Asset*

- Building and Low-Income Families*, edited by McKernan, S., and Sherraden, M., Washington, D. C.: The Urban Institute Press.
- Neugarten, B. L., Havighurst, R. J., & Tobin, S. 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 pp.134-143.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6).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s 2016 Edition*. Paris: OECD Publishing.
- Richard, L., Gauvin, L., Gosselin, C., & Laforest, S. (2009). Staying connected: neighbourhood correlates of social participation among older adults living in an urban environment in Montreal, Quebec.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24(1), pp.46-57.
- Rowe, J. W., & Kahn, R. L. (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4), pp.433-440.
- Sherraden, M. (1991). *Assets and the Poor: A New American Welfare Policy*. New York: M. E. Sharpe, Inc.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pp.422-445.
- Stolle, D & Rochon, T. (1998). Are all associations alike?: member diversity, associational type and the creation of social capital.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2(1), pp.47-65.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concepts, and applications*. (pp.56-75). Newbury Park, CA: Sage.
- Winters, P., Davis, B., & Corral, L. (2002). Assets, activities and income generation in rural Mexico: factoring in social and public capital. *Agricultural Economics*, 27(2), pp.139-156.

## **The Effects of Asset o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Focused on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 of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Shin, Yong Seok**

**Won, Do Yeon**

**Noh, Jae Hyun**

(Sungkyunkwan University)

(Sungkyunkwan University)

(Sungkyunkwan University)

---

This study aimed to confirm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 of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in the process of the elderly asset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For this purpose, we drew data on a total of 4,150 people aged 65 and older from the 5th 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We analyzed the data employing the SPSS Process Macr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ssets of elder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Second, the more assets elderly people have, the more actively they participate both in formal and informal social activities. Third, participation in formal and/or informal social activitie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Lastly, assets of the elderl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through participation in formal and/or informal social activ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e mechanism of effect of assets on life satisfaction and suggested the necessity of social welfare strategy development in order to activate social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

**Keywords:** Assets of the Elderly, Formal Social Activities, Informal Social Activities, Life Satisfaction, Welfare Effects of Assets